

한국 소장 중국 刊本 통속소설에 대한 述論

潘建國*

- | | |
|-------------------------------|------------------------------------|
| I. 한국 소장 중국 통속소설 刊本の 현황 | III. 조선 왕실과 연행사 그리고 중국통속소설의 유입과 전파 |
| II. 한국 소장 중국간본 통속소설 속 유일본과 善本 | |

• 국문초록

현존하는 여러 서목을 통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 통속소설 간본은 많으나 주로 청나라 중후반의 坊刻本, 청나라 말기 민국시기의 활자본과 石印本이 주를 이루며, 학술적 문헌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명 刻本과 청 초기 간본은 소장 량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유일본이나 선본이 적지 않다. 『型世言』, 『莽男兒』와 같이 중국에는 없는 소설 작품뿐만 아니라 『皇明英烈傳』, 『百家公案』, 『廉明公案』, 『醒世姻緣傳』, 『引鳳簫』 등 명청 소설 초기의 중요한 판본도 소장하고 있어 충분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조선 왕실 및 연행 사절은 중국 통속소설을 한반도에 유입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록 儒學이 한반도의 사회와 문화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통속소설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었다. 하지만, 한자 문화라는 특수한 힘에 의해 알게 모르게 대대로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중국 刊本, 소설 전파, 연행사, 동아시아 漢籍, 한국 장서

* 北京大學 中文系 教授

한반도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唐나라 때부터 줄곧 긴밀한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중국에서 크게 관심 받지 못한
 稗官小説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중국 典籍이 각종 경로를 통해 조선으로 유입
 되었다. 조선 문인들은 중국 소설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소장하고
 傳寫하며 인쇄하였으며 편집해 새로 편찬하고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
 에 한국의 관민 문화 기관에는 풍부한 중국소설 문헌 사료가 보존되어 있다. 그 문헌
 은 형태에 따라 대략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

1. 한국 소장의 중국 소설 刻本

2. 중국 소설의 조선 번각본과 전사본

조선 금속활자본 『三國志通俗演義』(잔존 권8), 조선 번각본 『三國志傳通俗演義』
 12권, 당나라 段成式 『酉陽雜俎』 20권, 명나라 瞿佑의 『剪燈新話句解』 2권,
 명나라 趙弼의 『效顰集』 3권, 명나라 陶輔의 『花影集』 4권 등

3. 조선 문인들의 중국소설 선집본

조선문인 成任(1421~1484)의 『太平廣記詳節』 50권(잔존 26권)과 『太平通載』
 100권(잔존 12권), 『鐘離葫蘆』 불분권, 英祖 시기 金氏의 『文苑植橘』 2권 등

4. 중국소설 조선 번역본

필자는 2와 3의 유형에 속하는 중국 소설에 대해 孫遜 교수(중국상해사범대학),
 樸在淵 교수(한국선문대학교)와 『韓國所藏中國珍本小說叢刊』(2014년)²⁾을 공편하였
 다. 주요 부분을 선택하여 영인하고 학술적 문헌가치에 대해 설명하였다. 4의 경우
 한국학자들이 이미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어떤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에 속하는 한국에 소장된 중국
 소설 간본 속 통속소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이 부분은 고려대학교 崔溶澈 교수의 학술적 제안을 받아 들였으며 특별히 감사드린다.

2) 潘建國·樸在淵·孫遜, 『韓國所藏中國珍本小說叢刊』, 上海古籍出版社, 2014.

I. 한국 소장 중국 통속소설 간본의 현황

한국에 소장된 중국 통속소설의 간본(목각본, 석인본, 활자본 포함)은 얼마나 될까? 현재까지 네 명의 한국 학자가 편집한 書目에 이와 관련한 기초적인 통계와 저술이 진행되어 있다.

첫 번째는 최용철·박재연 공편의 『韓國所見中國通俗小說書目』(1993)³⁾으로 813편의 중국통속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문헌 기록만 있는 132편을 제외하고 실제로 민관에 소장된 681편의 중국 통속 소설을 기록(동일 소설의 서로 다른 판본과 소장본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全寅初의 『韓國所藏中國漢籍總目』⁴⁾으로 ‘子部小說家類’에 중국통속소설 602편(동일 소설의 다른 판본과 소장본 포함)을 수록되어 있다.

세 번째로 閔寬東과 陳文新이 공편한 『韓國所藏或文獻記錄所見中國小說書目』(2011)⁵⁾에는 모두 338편이 수록(동일 소설의 다른 판본과 소장본 제외)되어 있다. 그 중에는 138종의 文言소설(소량의 혼입된 彈詞와 鼓詞를 포함)과 200종의 통속소설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산실된 64개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판본이 소장되어 있는 중국통속소설은 136종에 달한다.

네 번째는 민관동, 진문신과 張守連이 공편한 『韓國所藏中國通俗小說版本目錄』(2015)⁶⁾이다. 明代 작품 38종과 清代 작품 111종, 총 149종을 기록하고 있으며 종류마다 상세하게 諸家 藏本들을 나열하였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상기 네 가지 목록 모두 소장목록에 기반한 ‘종이에 기록된 목록’으로 소장기관의 원서와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내에 소장된 중국통속소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목록이 아니어서 통계수치가 완전하지 않다. 기록된 항목들이 편차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통계수치에는 소량의 非 중국간본의 작품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비록 이러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 4가지 서목으로 한국에서 보존하고 있는 중국 통속소설 간본의 대략적인

3) 樸在淵·崔溶澈, 『韓國所見中國通俗小說書目』, 江原大學校, 1993.

4) 全寅初, 『韓國所藏中國漢籍總目』, 韓國, 학고방, 2005.

5) 閔寬東·陳文新, 『韓國所見中國古代小說史料』, 「附編」 2, 武漢大學校出版社, 2011, 450~474면.

6) 閔寬東·陳文新·張守連, 『韓國所藏中國通俗小說版本目錄』, 武漢大學校出版社, 2015.

상황을 고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참고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상술한 네 가지 목록을 읽고 필자가 실제로 조사한 전적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전반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국소장중국통속소설판본목록』에 따르면 한국에서 보존하고 있는 중국 통속소설 간본 중,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三國志演義』, 『水滸傳』, 『西漢演義』, 『東漢演義』, 『東周列國志』, 『西遊記』, 『封神演義』(한국에서 『西周衍義』로 불림)와 『今古奇觀』 등이며 중국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로 감상 위주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유행한 『紅樓夢』, 『儒林外史』, 『三言』, 『二拍』과 같은 소설은 한국에 소장된 수가 많지 않다.

둘째, 한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통속소설 판본은 청나라 중후반 방각본과 청나라 말기 민국시기의 활자본 및 석인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명나라 각본과 청나라 초기 간본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소장중국통속소설판본목록』(2015)에 수록된 38종의 명대 작품 중에 실제로 한국에 남아 있는 명나라 각본은 겨우 9종 13부로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그 절반에 해당하는 여섯 작품을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널리 전해지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남아 소장된 작품은 『삼국지연』이며, 명나라 판본은 오직 1책만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수호전』, 『서한연의』, 『東漢演義』, 『東周列國志』, 『西遊記』, 『封神演義』 등 소설 중 명나라 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白話 단편소설의 대표작인 『삼언』, 『이박』 5종 중 한국에 현존하는 명나라 판본은 『醒世恒言』 1종 3부로 모두 殘本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청 시기 중국과 한국 간에 전적 문화 교류가 빈번하였고 매우 이른 시기에 한반도에 중국통속소설이 유입되어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으며,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인 일본의 경우와도 선명한 대비를 보인다.

셋째, 한국에 소장된 명나라 간본 또는 청나라 초기 간본 중국통속소설 대부분은 殘帙로 대부분 훼손되어 있다. 조선 왕조 도서관인 규장각(현재 서울대학교 인수)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나라 각본 『型世言』, 『新鐫全像包孝肅公百家公案』, 『醒世恒言』 등 소설 또한 일부가 손상되어 있다. 한국에 소장된 서책의 표지, 속표지, 뒤표지와 책갈피의 공백과 종이 뒷면에는 미상의 붓글씨 흔적 또는 시문 잡서를 베껴 쓰거나 서예 연습을 한 흔적이 있다. 이러한 먹물자국은 원서의 문자를 훼손하였으며 일본에

현존하는 중국 소설 간본 상태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16세기 이후 한반도에 天災와 人災가 특히 많이 발생하여 서적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마도 한반도에서 패관소설의 사회 문화적 지위가 높지 않아 문인과 수집가 그리고 독자들이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았거나 어쩌다 종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교 경서나 전적보다 소설이나 잡서를 서체연습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수도 있다. 셋째, 고려시기 종이 재질이 두텁고 질기고 단단한 것에 비해 한반도로 유입된 唐本 소설은 대부분 대나무로 만든 종이에 인쇄하여, “종이의 질이 매우 취약하고 쉽게 부식되고 해지며 썩이나 쥐 등 벌레가 쉽게 먹고 한번 훼손되면 비치해두기 어려웠다(紙品甚脆, 易受朽傷, 蠹鼠偏蝕, 一惑毀破, 更難備置).”⁷⁾ 하지만 당본 소설은 극히 드문 외래 물건이어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 한반도에서 유통되는 副本은 극히 적었고 서적이 훼손된 후 다시 보충하기가 힘들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명나라 판본 또는 청나라 초기 간본 통속소설이 한국에서 일부만 완질로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 서적 역사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I. 한국 소장 중국간본 통속소설 속 유일본과 선본

한국에 소장된 중국 통속소설 간본의 학술적 가치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학이 전파된 역사에서 중국 소설이 한반도에 전파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설문헌학 분야에서 살펴본 것으로, 본고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국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 고대 통속소설 자료를 보면 청나라 중후기 이후의 각본, 활자본, 석인본의 소장량은 매우 방대하고 체계적이지만 명나라 판본과 청나라 초기 간본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고소설 문헌학에서 해외 漢籍의 학술적 의의가 부각되고 있으며,

7) 李圭景(1988~1877), 『五洲衍文長箋散稿』 권5, 陳文新·閔寬東이 공편한 『韓國所見惑文獻記錄所見中國小說書目』에서 재인용하였다. 武漢大學校 출판사, 2015, 5면.

방문 조사의 초점이 명나라 판본과 청나라 초기 간본 등 중국 소장본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맞춰져 있다. 비록 한국 소장 판본의 수가 많지 않지만 대다수가 유일본과 선본이므로 충분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1. 유일본: 중국에서 산실된 소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진경호, 박재연, 최용철 등 학자들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秘籍으로 불리는 명나라 말기 간본 『형세언』을 발견하였다. 이 책은 조선의 장정 방식을 사용하였고 11책이 잔존해 있으며 서문과 삽화가 실려 있는 1책이 빠져있다. 모두 40여 편의 白話文소설이 수록되었으며 글쓴이는 杭州 陸人龍이고 評點者는 그의 형인 陸雲龍이었으며 육씨 가문의 書坊인 ‘崢嶸館’에서 출판되었다. 『형세언』은 중국에서 산실된 지 오래되었고 어떠한 도서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⁸⁾ 이 책은 대만, 서울 그리고 중국 여러 출판사에서 빠르게 출판하였으며 국내외에 널리 유행하였다. 소설 역사에서 명나라 말기 백화 단편소설 대표작도 기존의 『삼언』 『이박』에서 『삼언』 『이박』 『一型』으로 바뀌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산실된 지 오래된 유일본 소설인 『형세언』이 당시 한반도에 유입된 것이 한 부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학자 金秀燕의 최근 연구⁹⁾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왕실이 소장한 『형세언』은 최소 두 종류의 판본이 존재하며, 민간의 해남 녹우당 綠雨堂에 소장된 한 부까지 합하면 일찍이 한반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형세언』은 세 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8) 王重民이 미국국회도서관 소장 명나라 崇禎시기 陸雲龍의 『皇明十六家小品』에 提要를 쓸 때, 책속에 원고모집공고가 두 페이지 있고 그 중에는“『型世言』 출간을 위해 대내외의 奇聞을 모집한다.”라는 글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소위 말하는 『型世言』은 후에 『二刻拍案驚奇』를 각본하기 위해서이고 나는 일찍이 파리에서 이것을 본적 있다.”라고 하였다. 비록 王重民은 예민하게 『型世二集言』은 소설이라는 것을 맞췄지만 그는 어쩌면 『型世言』(1집)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2집은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李圭景, 『中國善本書提要』, 상해고적출판사, 1983, 477면 참조.

9) 김수연, 「명말 상업적 규범소설의 형성과 조선 왕의 소설 독서-규장각본 『型世言』을 중심으로」, 『국國際漢學研究通訊』, 北京大學, 2019, 19~20 종합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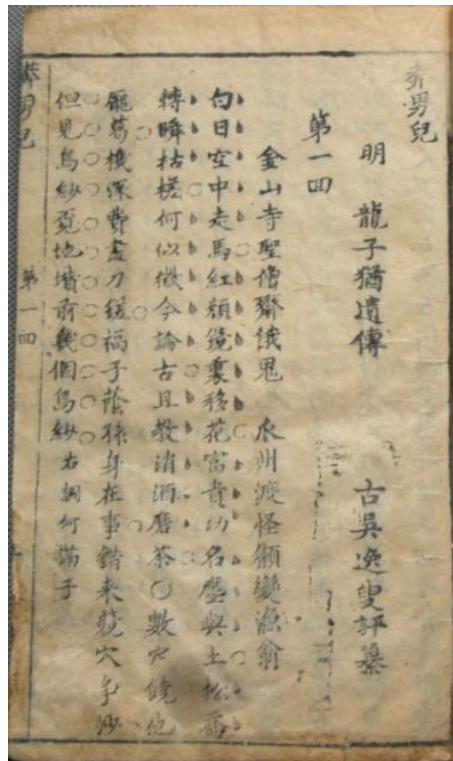
『형세언』은 발견된 후 줄곧 한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소설 가운데 진귀한 문헌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필자가 한국 舊藏本이자 중국에서 이미 산실된 유일본 『莽男兒』소설을 발견하면서 『형세언』은 더 이상 그 명성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망남아』는 청초 寫刻本으로 24회 6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조선의 장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1>). 1회 첫 페이지 제목은 ‘明龍子猶遺傳, 古吳逸叟 評纂’(<그림 2>)으로 ‘龍子猶’는 晚明 소설가 馮夢龍이다. 여기서는 후인들이 풍뎡뎡을 사칭한 것으로, 실제 저자는 ‘古吳逸叟’이나 아쉽게도 그의 생애는 자세하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이나 한국의 도서목록 어디에도 『망남아』에 대해 기재된 것이 없어 아주 진귀한 유일본 중국소설¹⁰⁾이다.



<그림 1> 한국 소장 청나라 초 각본 『망남아』 韓國裝 표지(현재 二靖室 소장)

10) 潘建國, 「新見清初章回小說『莽男兒』考論」, 『文學遺產』, 2019.1 참조.



〈그림 2〉 한국 소장 청나라 간본 『망남아』 1회 1면

뿐만 아니라 『망남아』는 특별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1930년대, 일본의 조선 역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와 베트남 역사 연구학자 마츠모토 노부히데 (松本信廣) 그리고 중국의 민속학자 鍾敬文 등은 일찍이 동아시아 ‘老獺稚’ 설화의 기원을 둘러싸고 학술적인 논쟁¹¹⁾을 전개한 적 있다. ‘노달치’ 설화는 한반도, 베트남 문헌과 중국 민간에 전해진 설화유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속에 사는 수달요괴가 인간 세상의 여성을 유혹하여 신기한 노달치를 낳았다. 노달치는 비범한 수중 잠수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후에 風水師는 깊은 호수 바닥의 龍穴을 발견하였고 노달치는 이 기회를 틈타 부친의 유골을 그 용혈에 묻었고 후에 군왕이 된다. 세 나라에서 전해지

11) 潘建國, 「老獺稚故事的中國淵源及其東亞流-以清初〈莽男兒〉小說〈秀衣郎〉傳奇爲新資料」, 『民族文學研究』, 2019.3 참조.

고 있는 ‘노달치’ 설화 자료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안남 『公餘捷記』(1755)에 수록된 덩띠엔황(丁先皇) 고사이며 그 다음으로는 1908년에 한반도의 함경북도에서 채록된 淸太祖 전설이다. 가장 늦은 것은 1932년 중국 江蘇省 灌雲에서 채록된 宋太祖 전설이다. 종경문은 「老獺稚傳說的發生地」(1935)에서 설화 속 풍수신앙은 중화민족의 “가장 특징적인 민속신앙 중 하나이며” 중국문화는 줄곧 조선과 안남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극極東 3개 지역에 널리 전파된 동일한 형태를 가진 전설의 발생지는 틀림없이 중국”¹²⁾ 일 것 이라고(약칭 ‘중국발생설’) 추정했다. 비록 종경문의 추정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나 학술적 논리성을 고려하면 ‘중국발생설’은 여전히 더 앞선 시기의 문헌적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

그 철저한 고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초에 간행된 중국소설 『망남아』이다. 『莽男兒』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양자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달이 강변에 살고 있는 董皮匠의 딸을 유인하여 간통하고 양자강 깊은 수심까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신비한 아들 ‘董蟒兒’를 낳았다. 풍수사가 鄱陽湖 호수 바닥에서 용혈을 발견하였으나 물이 깊어 들어 갈 수 없자 동망아에게 나서주기를 청하였다. 동망아는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부친인 수달 유골을 용혈에 매장했다. 그 후 동망아는 소금을 밀매하고 운반하는 소금장수들에 의해 수령으로 추대되어 관군에 저항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성을 공략하고 땅을 빼앗아 놀란 조정에서는 사신을 파견해 항복하도록 하였다. 동망아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바다 건너 동쪽나라 ‘푸니국(현재 브루나이)’을 정벌하고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파니국 국왕’으로 봉해졌다. 『망남아』의 주요 줄거리 구조는 완벽히 ‘노달치’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편집 출간 시기는 청나라 초기로, 베트남의 『공여첩기』(1755)보다 훨씬 앞선다. 이로써 종경문이 제기한 동아시아 노달치 설화의 ‘중국발생설’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0년 동안 동아시아의 학술적 논쟁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형세언』과 『망남아』는 한국 소장 중국 간본 통속소설의 쌍벽을 이룬다고 할만하다. 이 두 소설이 차례로 발굴되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중국소설 유일본이 또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생긴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기에 完山 李氏의 『中國小說繪模本』 序文(1762), 尹德熙(1685~1766)의

12) 鍾敬文, 「老獺稚傳說的發生地-呈服部宇之-西村真次」, 『民族文學研究』 1(1), 東京, 1935.

『字學歲月』(1744)과 『小說經覽者』(1762) 등 세 부의 중국소설 도서목록이 있었으며 『형세언』, 『留人眼』, 『人月圓』, 『錦疑團』 등 책명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러한 책명은 들어본 적도 없고 정체도 명확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한국 혹은 중국에서 소설의 원서¹³⁾를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이 세 부의 도서 목록 작품은 당시 한반도에서 볼 수 있었던 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목에는 『太原志』, 『十二峰』, 『盛唐演義』, 『韓魏小史』, 『涿鹿演義』, 『南溪衍譚』, 『奇團圓』, 『遇奇緣』 등 아직 발굴하지 못한 작품이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어쩌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2. 선본: 초기 판본 또는 특수 판본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 소장된 명나라 각본과 청나라 초기의 간본은 양은 많지 않으나 훌륭한 작품이 많다. 이들은 어떤 중국소설의 초기 판본 또는 특수 판본으로 판본의 전승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소설의 원시적인 文貌와 文本의 변화를 고증하여 교정하는 데 있어서 문헌적으로 참고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명나라 개국 이야기를 담은 소설 『英烈傳』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빠른 원본은 중국 寧波 天一閣에서 소장하고 있는 明抄本 說唱詞話本 『國朝英烈傳』¹⁴⁾이다. 이는 현존하는 간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명나라 간본인 6권 60칙으로 이루어진 『新刻皇明開運通略武功名世英烈傳』이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 일본국립공문서관, 닛코린노지(日光輪王寺), 이시카와 타케시기념관(石川武美紀念館) 세이키도(成簀堂) 문고 등 네 곳에 소장본이 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필자는 한국 소장 명나라 간본 『皇明英烈傳』 간본을 새로 수집하였다. 51책이 남아있으며 조선 장정방식을 사용하였고, 권수와 권말에 “烏城人崔綱宇”(〈그림 3〉)라는 墨印이 찍혀 있다. 여기에서 ‘烏城’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전라남도 화순군의 옛 이름이다. 崔綱宇와 그의 동생 崔綱宙는 영조 14년(1738, 청나라 건륭 3년)에 동시에 과거에

13) 潘建國, 「新發現明末清初小說『留人眼』考」, 『明清小說研究』, 2015.3; 潘建國, 「阿英藏清早期刻本『留人眼』小說考略」, 『明清小說研究』, 2019.2; 朱雯, 「稀見清代小說『錦疑團』敘論」, 『文學遺產』, 2020.6.

14) 가와코오지(川浩二), 「天一閣博物館藏『國朝英烈傳』與歷史小說『皇明英烈傳』」, 『中國文學研究』, 復旦大學, 2011.18; 潘建國, 「存世最初的小說版皇明開國史-天一閣藏『國朝英烈傳』及基價值」, 『稻畑耕一郎教授榮休紀念論文集』, 日本東京書店, 2017.

합격하였고 『雲齋集』이 대대로 전해지고 있으나 한적 구장본은 드물다.



〈그림 3〉 한국 소장본 조선 장정 방식의 표지(좌측)와 卷尾 ‘烏城人崔綱宇’ 藏印(우측)(현 兩靖室 소장)

한국 소장본의 卷과 節의 나눔 형태가 명나라 간본 6권과 완전히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원서 또한 6권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국립공문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6권 판본과 비교 검토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 한국 소장본은 그림이 없고 風格을 분석해보니 강남 刻本人듯하나 일본 소장본은 위에 그림이 있고 아래에 글이 적혀있는 福建 각본이다. 2) 한국 소장본의 行款은 半葉 14행 32자이며 일본 소장본은 13행 26자이다. 3) 한국 소장본의 版心題는 『皇明英烈傳』이고 일본 소장본은 제목은 『全像英烈傳』이다. 4) 본문의 문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권5 『王禕進呈太平表 徐達功取山東路』 ‘節目’을 보면, 일본 소장본에는 “此乃天子之洪福, 元帥之虎威也.”라 적혀 있고, 한국소장본에는 “此乃聖天子之洪福, 大元帥之虎威也.”라 적혀 있다.

6권 본에는 가끔 “大明”, “太祖”, “皇上”, “天子”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모두 새로운 행에 시작되고 들여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존경을 나타냈다. 일본 소장본은 오히려 이곳의 “聖”자를 삭제하였고 “天子”라는 글자도 다른 새로운 행에서 시작하지

않고 있어 한국 소장본과 비교했을 때 제멋대로이면서 거친 감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종합해볼 때, 일본 소장본은 6권본 이후 번각본이 나왔고 한국 소장본은 새로운 명나라 간본의 6권본이며 그 원시적인 모양이 잘 보존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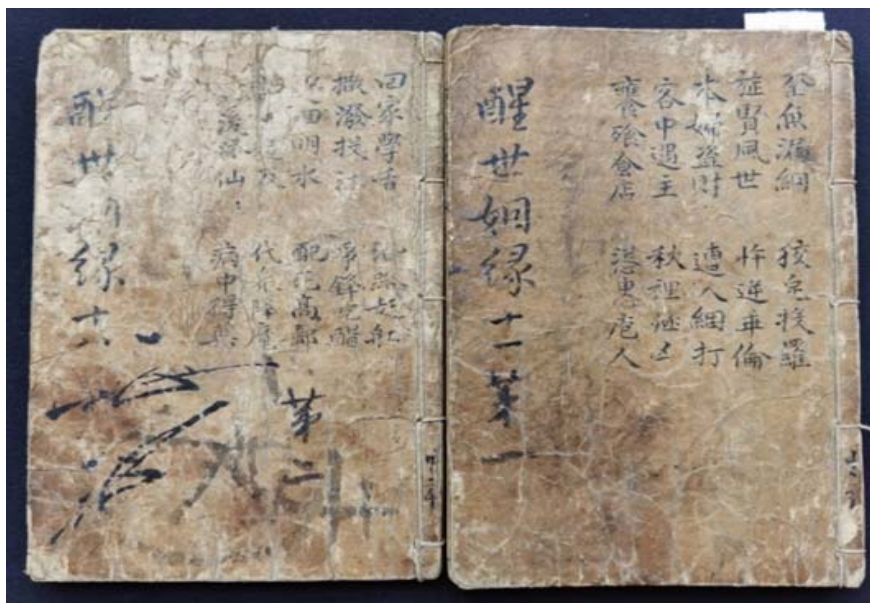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소장중국통속소설판본서목』에 따르면 한국 대구 경산군 崔在石이 명나라 간본 『新刊皇明通紀輯略武功名世英烈傳』 잔본 1책 2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英烈傳』의 여러 판본에 적힌 책명에는 상기 ‘皇明通紀’ 네 글자가 없다. 최재석이 소장한 책의 판식은 半葉 12행 24자로 여러 판본과 다르다. 만약 목록에 착오가 없다면 또 다른 새로운 명나라 간본인 『영렬전』이다. 명나라 때, 한반도와 명나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명나라 개국 역사를 서술한 소설 『영렬전』은 자연스럽게 조선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전파와 유행 또한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나라 萬卷樓의 간본 『新鐫全像包孝肅公百家公案』은 비록 권3이 잔결되어 있으나 세계에서 유일한 소장본이다. 또한, 이는 『百家公案』(包公斷案小說傳集)의 판본체계 중에서, 명나라 萬曆 與畊堂 간본과 판본 전승 부분에서 “형제관계”¹⁵⁾로, 두 책 모두 『백가공안』 祖本の 文本 유전자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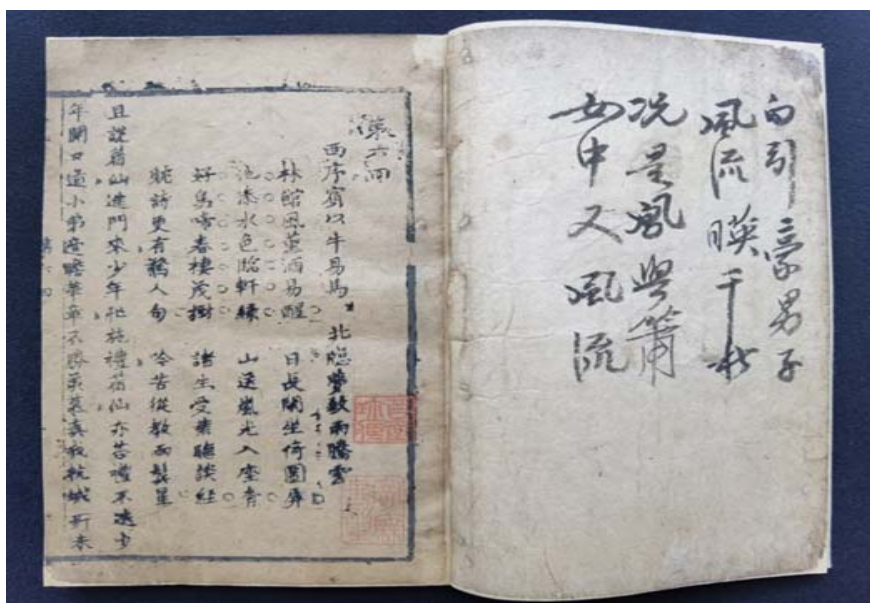
명나라 판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나라 간본 중국 통속소설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중요한 판본 또한 적지 않다. 이 자리에서 大連圖書館과 관련된 소설 두 작품을 예를 들고자 한다. 먼저, 『醒世姻緣傳』 100회는 이미 알려졌듯이 남겨진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대련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나라 초기 간본의 辛醜十行本¹⁶⁾이다. 필자는 최근에 한국 구장본을 수집하였는데 조선 장정방식(<그림 4>)으로 2책이 잔존하고 있으며 한 책의 표지 우측 하단에는 먹으로 ‘十一’이 적혀 있었고 원문은 51~55회였다. 다른 한 책의 표지에는 먹으로 ‘十八’이 적혀 있었고 원문은 86~90회였다. 이로써 원서의 매 책마다 5회로 이루어져 있고 함께 20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書葉의 뒷면에는 붓으로 『寒暄割錄』 권4(<그림 5>)를 필사하였다. 이 책은 조선 각본으로 여러 교육 과정에 응용되었다.

15) 楊緒容, 『百家公案研究』 1장, 上海古籍出版社, 2015, 5~12면.

16) 李國慶, 「『醒世姻緣傳』 版本新探」, 上下編, 『明清小說研究』, 2005.2와 2006.3에 연재.



〈그림 4〉 한국 소장본 조선 장정방식의 표지와 붓으로 필사한 回目 문자(현재 兩靖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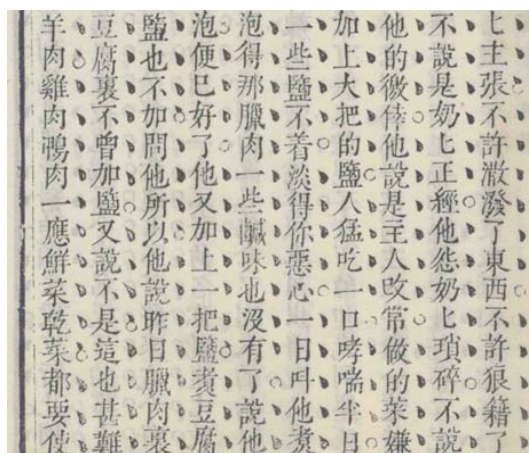


〈그림 5〉 한국 소장본 종이 뒷면에 쓴 『寒暄割錄』 권4 목록

대략적으로 비교해보니 한국 소장본의 행관과 글자체 모두 대련본과 매우 일치하지만 문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54회 9葉 B면 4행을 보면 대련본(<그림 6>)에는 “加上大把的鹽, 人猛吃一口, 哮喘半日.”라고 적혀있으나 한국 소장본(<그림 7>)에는 “加上大把的鹽, 教人猛可的誤吃一口, 哮喘半日.”라고 적혀 있다.

한국 소장본의 “教人猛可的誤吃一” 여덟 글자는 작은 글씨로 두 줄로 되어 있고 위치 또한 대련본의 “人猛吃一口” 네 글자와 비슷하다. 고서 刻印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는 교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서예를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대련본은 마지막 행의 ‘應’자 위치, 그리고 ‘榮’자와 ‘乾’자 사이 좌측 版匡에 가늘고 작은 금이 나 있지만 한국 소장본에는 이 두 곳 모두 선명하게 끊어져 있다. 이러한 흔적을 통해 한국 소장본은 대련본과 동일한 판본이긴 하지만 인쇄는 그 후에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술한 한국 소장본에 나타난 작은 글씨 두 줄은 대련판본을 교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대련본 원문이 상당히 매끄럽고 한국 소장본은 수정 이후 비록 구어체가 더 두드러지나 문장의 의미는 대련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수정한 동기는 무엇이며 이러한 교정은 누구의 손을 거쳤는가는 연구를 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성세인연전』은 다른 판본도 있으며 이곳의 문자는 모두 한국 소장본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소장본은 비록 대련본보다 후에 인쇄되었지만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수정본이며 그 후 여러 판본의 저본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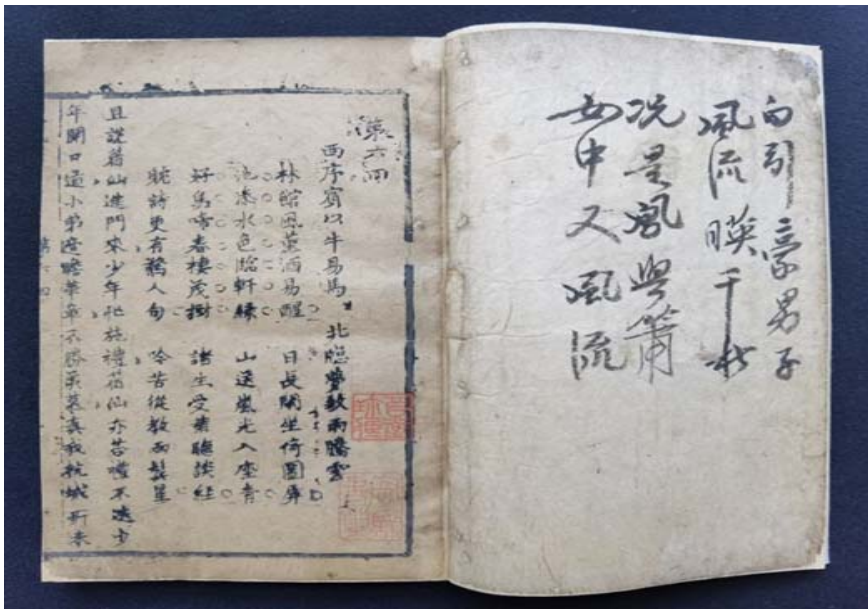


〈그림 6〉 대련본 (54회 9葉 B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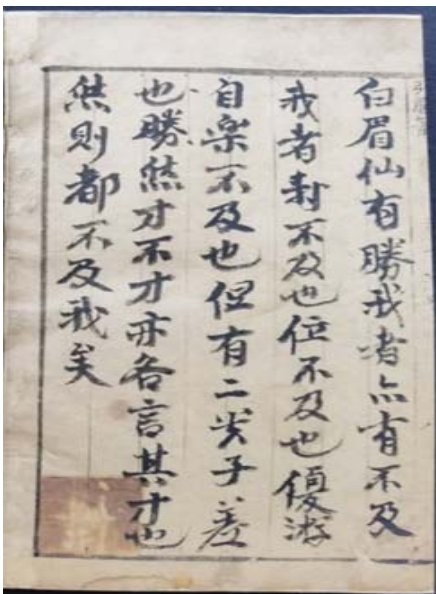


〈그림 7〉 한국 소장본(54회 9엽 B면 작은 글자 두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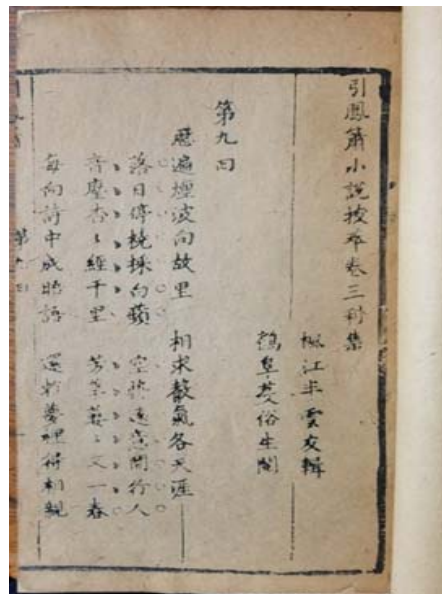
또 다른 한 권은 청나라 才子佳人의 소설 『引鳳簫』 16회이다. 일본학자 오츠카 히데다카(大塚秀高)의 『増補中國通俗小説書目』(1987) 목록에 따르면 현재 5부만 남아있고 그 중 4부는 일본에서 소장(일본국립공문서관 兜 部,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雙紅堂文庫 1부)하고 있고, 중국에는 오직 대련도서관에서 1부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진귀하게 여겨진다. 현재 소장하고 이 5부의 책명 모두 『인봉소』로 행관은 반엽 10행이고 행마다 21자다. 하지만, 필자가 수집한 한국 구장본은 16회만 남아있으며, 권두에 미상의 조선 문인의 시가 적혀있고(<그림 8>) 권미에도 붓으로 쓴 題識과 藏印이 있다(<그림 9>). 한국 소장본은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책 이름은 『引鳳簫小説拔萃』(<그림 10>)이고 ‘小説拔萃’라는 단어는 극히 드물게 사용하고 있었다. 책을 ‘元’, ‘亨’, ‘利’, ‘貞’ 4집 4권으로 나누었고 매 권은 1집 4회로 이루어져 있다. 행관은 반엽 8행이고 행마다 20자이며 글자가 비교적 또렷하다. 내용 문자는 기타 여러 판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玄’, ‘眞’, ‘曆’ 등 청나라 諱字 사용을 피하지 않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소장본은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인봉소』 소설 초판본이고 대략 청나라 초기 順治 시기나 康熙 초기 판본으로 추정한다.



〈그림 8〉 한국 소장본 권두의 조선 문인의 붓글씨 시(현 양정실 소장)



〈그림 9〉 한국 소장본 권말 題識와 藏印



〈그림 10〉 한국 소장본 권3 제목 '소설발취'

Ⅲ. 조선 왕실과 연행사 그리고 중국통속소설의 유입과 전파

그렇다면 상기 언급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중국통속소설은 언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한반도에 유입시켰을까? 이에 대해 중한 두 나라 모두 많은 연구를¹⁷⁾ 진행해 왔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필자는 조선왕실과 燕行使라는 특수한 두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새로운 자료와 결합해 논제를 정하고 고찰하고 논하고자 한다.

중국통속소설이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는 고려시기(원나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려 말 편찬된 『機通事』는 중국어 회화 학습서로 『趙太祖飛龍記』와 『唐三藏西遊記』를 구매하는 일상적인 대화도 실려 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굴한 舊本 『老乞大』에도 『三國志平話』를 구매하는 대화가 실려 있다. 비록 이 두 책은 단순히 책을 구매하는 상황을 허구로 만들어 글로 적어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원나라 간본의 平話는 남아있지 않지만 『삼국지평화』와 『西遊記平話』가 한반도에 유입되어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고려 忠穆王 4년(1348, 元順帝至正 8년)에 세워진 敬天寺 10층 석탑(한국국보, 현재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층 기단부에 여러 폭의 서유기 장면[西遊取經]이 조각되어 있는데 역시 그 원본¹⁸⁾이 있다. 고려시기 문인인 李穀(1298~1351)의 『稼亭集』 15권 詠史시 「呂布」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다.

평소 친하게 모시던 동 태사를 배반했으니
백문에서 항복했지만 누가 의심을 안 할까
젊어서부터 (臺卿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는

17) 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鄭沃根, 「中國古代小說在韓國的流傳和影響」, 『華東師範大學學報』, 1994.4; 陳翔華, 「中國古代小說東傳韓國及影響」, 『文獻』, 1998, 3·4, 上下로 나누어 연재; 閔寬東, 「中國古代小說在韓國之傳播」, 學林出版社, 1998; 李時人, 「中國古代小說在韓國的傳播和影響」, 『復旦學報』, 1998.6; 崔溶澈·金芝鮮, 「中國古代小說在韓國的傳播與接受」, 『華中師範大學學報』, 2007.1; 閔寬東, 「中國古典小說的傳播和受容」, 서울: 亞細亞文化史, 2007; 閔寬東 外, 「中國通俗小說의 流入和受容」, 韓國學古房, 2014.

18) 謝明勛, 「西遊新材料의 提出: 韓國敬天寺元代石塔『西遊』故事浮彫圖解」, 『西遊記考論』 1章, 臺灣裏仁書局, 2015, 3~82면.

유씨네 귀 큰 아이 믿을 수 없다 하였다네.

已負平生董大師，白門雖下孰無疑。

不知自小臺卿智，叵信劉家大耳兒。

여기에서 劉備를 ‘귀 큰 아이(大耳兒)’로 희칭하고 있으나 중국 역사서에는 기록된 바 없다. 그러나 『삼국지평화』(‘大耳兒’로 부름)에는 있으니 아마도 이곡이 이 책을 읽었을 수도 있다.¹⁹⁾

명나라 시기에도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중국소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왕실과 관련된 두 가지 ‘소설사건’이 눈길을 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따르면, 연산군 12년(1506, 明 正德 元年) 4월 13일에 중국으로 간 謝恩使들은 『剪燈新話』, 『剪燈餘話』, 『效顰集』, 『矯紅記』, 『西廂記』 등의 서적²⁰⁾들을 구매하였다. 비록 나열한 책들이 문언소설 또는 희곡 류이고 통속소설은 없지만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명나라 정덕 시기부터 명나라 초기까지의 간간 중국통속소설은 현재까지 새롭게 발견된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조판 인쇄술로 출판한 첫번째 章回소설은 『三國志通俗演義』이며 시기는 대략 가정 초기(1522)로 알려져 있다. 이 소설은 한나라 말 삼국 연사를 엮은 장편소설로 빠르게 한반도에 전해졌으며 조선왕조는 귀중한 출판자원을 동원하여 번역하고 인쇄하였고 조선인쇄본은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군왕의 ‘傳敎’에서도 『삼국지연의』의 전고를 인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보수 문인들이 반발하면서 두 번째 ‘소설사건’이 야기되었다.

두 번째 사건, 조선 宣祖 3년(1569, 明隆慶 3년) 6월에 신하인 奇大升이 進啓하기를,

“지난번 張弼武를 인견하실 때 전교하시기를 ‘張飛의 고향에 萬軍이 달아났다고 한 말은 정사에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삼국지연의』에 있다고 들었다.’ 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 되지 아니하여 소신은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간혹 친구들에게 들으니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말이 매우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 신이 뒤에 그 책을 보니 단연코 이는 無賴한 자가 잡된 말을 모아

19) 趙維國, 「論『三國志通俗演義』在朝鮮半島的傳播與接受」, 『學術界』, 2011.6.

20) 『韓國所見中國古代小說史料』에서 인용, 123~124면.

古談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잡박하여 무익할 뿐 아니라 크게 의리를 해칩니다. …… 이 책은 『楚漢衍義』 등과 같은 책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가 하나뿐이 아닌데 모두가 의리를 심히 해치는 것들입니다. …… 王者가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 마땅히 바르지 않은 책은 금해야 합니다. 이는 그 해가 소인과 다름이 없습니다.²¹⁾

여기서 말하는 『三國志衍義』는 『三國志演義』이며 그 판본에 대해 한국학자 박재연은 수년전 한국에서 새로 발견한 금속활자본 『三國志通俗演義』(잔존 권8)라고 주장²²⁾하는데 하나의 설이라고 말할만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국지연의』의 예도 기대승은 “『楚漢衍義』 등 서적”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에 전해진 중국역사연의가 여러 종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초한연의』에서는 당연히 초나라 項羽와 한나라 劉邦의 대립을 묘사하는데 대체적으로 ‘서한西漢’ 演義와 대응된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명나라 甄偉의 8권 101칙(則)으로 이루어진 『西漢通俗演義』와 명나라 黃化寓가 교정한 6권 42칙으로 이루어진 『兩漢開國中興志傳』 모두 萬曆 후기 작품이다. 또 다른 작품은 6권 63칙으로 이루어진 『全漢志傳』의 「西漢志傳」으로 만력 16년(1588) 餘氏 克勤齋 간본으로 기대승이 진계한 융경 3년(1569)보다 20년 정도 늦어 모두 『초한연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학자 오즈카 히데다카(大塚秀高)는 「서한지전」 권두 서명 ‘鰲峯候人熊鐘穀編次’에서 熊鐘穀은 바로 유명한 통속소설가 熊大木이며 그가 편찬한 『唐書志傳通俗演義』, 『大宋中興通俗演義』 등 소설들은 嘉靖 후기에 간행되었으므로 「서한지전」 초간본은 嘉靖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 오즈카 히데다카의 이러한 주장은 믿을 만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조선 明宗, 宣祖 시기에 유입된 『초한연의』는 바로 가정본 「서한지전」이고 ‘초한연의’가 조선인이 개칭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본

21) 『宣祖實錄』, 선조 2년(1569) 6월 “壬辰”, 『韓國所見中國古代小說史料』, 158~159면. 頃日張弼武引見時, 傳教內 “張飛一聲走萬軍” 之語, 未見於正史, 聞在 『三國志衍義』 雲. 此書出來未久, 小臣未見之, 而或因朋輩間聞之, 則甚多妄誕. …… 臣後見其冊, 定是無賴者裒集雜言, 如成古談. 非但雜駁, 無益, 甚害義理. …… 非但此書, 如 『楚漢衍義』 等書, 此類不一, 無非害理之甚者也. …… 王者導民, 當禁不正之書. 此其爲害, 與小人無異也.”

22) 樸在淵, 「關於新發見的朝鮮活字 『三國志通俗演義』」, 『南京大學學報』, 2010.3.

23) 오즈카 히데다카(大塚秀高)가 편찬한 『西漢開國中興志傳』과 「西漢志傳」條目은 石昌渝의 『中國古代小說總目』 白話卷에 수록, 山西教育出版社, 2004, 279면, 203~204면.

책 이름이 원래 ‘초한지전’이었는지 아직 서둘러 결정하기는 어렵다. 熊氏가 편찬한 가정본 『唐書志傳通俗演義』, 『大宋中興通俗演義』 등 소설들은 당시 이미 한반도에 전해졌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일찍이 한반도에 유입된 여러 가정본 중국역사연의가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조(1568~1608)는 中國歷史演義에 폭 빠져있었다. 그는 전교에서도 『삼국지연의』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원문을 매우 꼼꼼하게 읽었을 것이다. 선조는 일찍이 딸 貞淑翁主에게 쓴 언문 편지에서 ‘包公案’ 한 질에 대해 “『포공안』은 기괴망측한 책이니 그저 한가할 때 한번 웃을 재료로 삼을 만할 뿐이다(『包公案』乃怪妄之書, 只資閑一哂而已.)”²⁴⁾라고 하였다. 선조 자신이 『포공안』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 읽기를 추천하였으니 이 또한 미담이라 할만하다. 선조가 말한 『포공안』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명나라 만권루의 간본 『백가공안』인지는 알 수 없다.

명나라 만력 시기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통속소설의 창작과 출판은 번영기에 접어들었으며 한반도에 유입된 작품 수량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조선 문인들이 구매한 중국소설의 수량은 전대를 훨씬 뛰어넘었고 중국통속소설을 읽고 평론한 문헌기록 또한 흔히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중국서적은 주로 관아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閑書에 대한 조선왕실의 태도는 조선시기 전체 士林 계층들의 수용 태도와 중국소설 서적에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영조(英祖, 1694~1776)는 조선 시기 역대 군왕 중에서도 중국소설을 가장 좋아한 군왕으로 그야말로 ‘소설광(小說迷)’(정확히 말하면 『三國』 애호가였다)이었다. 『承政院日記』 영조 부분에는 영조와 신하가 『삼국지연의』를 언급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14차례에 달하며 그 시기는 1734년~1776년으로 40여 년에 달한다.²⁵⁾ 예를 들면, 영조 10년(1734, 옹정 雍正 2년) 4월 4일에 영조는 “子牙라는 이름은 어느 책에 있는가?”라고 하니 신하 鄭羽良이 아뢰기를 “『삼국지』에 있습니다.”하고 다른 신하 徐命均이 아뢰기를 “『西周衍義』에도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24) 金一根 編注 『親筆諺簡總覽』, 자료번호 21, 景仁文化史, 1974, 『韓國所見中國古代小說史料』 재인용, 306면.

25) 孫勇進, 「『韓國所見中國古代小說史料』補遺·『三國演義』篇」, 『文學與文化』, 南開大學, 2016.1 참조. 아래 글은 영조 10년 4월 4일, 52년 2월 26일, 33년 10월 17일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이 글에서 인용하였기에 따로 주석을 달지 않았다.

있으니 군신 모두 『삼국지연의』, 『서주연의』(즉 『封神演義』) 등 중국소설을 잘 알고 있어 바로바로 대답한 것이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52년(1776, 건륭 乾隆 41년) 2월 26일 기록을 보면, “상이 집경당에 나아가(上禦集慶堂)” “상이 이르기를 내가 평소에 ‘3대 기서(三大奇書)’를 좋아하는데 특히 『삼국지연의』를 숙람(熟覽)하는 것을 좋아한다.(上曰: ‘三大奇書, 予常好矣, 而於『三國志』, 尤熟覽矣. ’)”라고 기재하고 있다. ‘三大奇書’란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를 말한다. 영조는 일찍이 조선 문인들이 선집한 중국문언소설집 『刪補文苑植橘산보문원사굴』에 題詩를 적기도 하였다.

뽑힌 작품들 맛좋은 사과와 귤 같아
 지난날 김상이 잘 유취했지(類聚).
 대나무 의자며 은 침상에서 한가로울 때
 초당에서 자주 펼쳐보며 봄날을 즐기려네.
 抄文其若果植橘, 憶昔金相類聚悉.
 竹榻銀床無事時, 草堂頻閱弄春日.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은 영조 자신이 즐겁게 소설을 읽던 시절을 읊은 듯하다. 중국소설에 대한 영조의 열정은 조선사회의 소설 구매 풍조에 자극은 준 것은 틀림없다. 조선 역사에는 3대 중국 소설 서목이 있는데, 완산 이씨의 『中國小說繪模本』 서문²⁶⁾(1762), 尹德熙(1685~1766)의 『字學歲月』(1744) 그리고 『小說經覽者』(1762) 모두 영조시기에 집필한 것으로 언급된 중국 소설만 100편이 넘는데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어쩌면 영조시기에 중국통속소설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절정기가 형성된 것 같다. 연행사신들은 영조의 환심을 사거나 중국소설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북경에 사신으로 갈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소설을 구입하여 조선으로 가져왔다. 심지어 규정을 어기는 것을 서슴지 않고 몰래 들여왔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국 역관들에게 갈취당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영조 33년(1757, 건륭22년) 10월 17일, 영조가 ‘冬至使’와 ‘按覈使’ 일행을 만나는 자리에서 연행사신들은 군왕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봉황성에서 “柵

26) 이 책의 중요한 서문 역시 영조에 의해 뒤주에서 굶어 죽은 사도세자가 친필로 쓴 것이라고 한다. 비록 부자의 세계관은 서로 다르지만 소설에 대한 사랑은 서로 통했다.

門을 나설 때 그들은 일일이 검사하면서 『삼국지』, 『수호전』 모두 금지물이라고 하니, 때문에 역관들이 그것을 무마하느라 (뇌물을 줘서) 이른바 『삼국지』 값이 600여 냥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出柵門時, 彼人每以搜檢爲言, 而如三國志·水滸志, 皆是禁物. 故譯官輩主於彌縫, 所謂三國志價至爲六百餘兩)” 『삼국지연의』한 질을 밀반입하는데 600냥 넘는 은자를 갈취해 갔으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이다. 대부분 연행사신들은 순조롭게 여러 종류의 중국소설을 구입해 왔다.

正祖(1752~1800) 2년(1778)에 조선 문인 李德懋(1741~1793)가 북경으로 사신을 갔을 때 琉璃廠 거리의 유명한 책방 五柳居에서 각양각색의 경서와 서적들을 보고 개탄하여 말하기를 “해마다 사신들이 끊임없이 왕래하였으나 그들이 수레로 우리나라에 실어 오는 것은 단지 연의소설과 『八代家文抄』, 『唐詩品彙』 등 책뿐이로구나(每年使臣冠蓋絡繹, 而其所車輪東來者, 只演義小說及『八大家文抄』, 『唐詩品匯』等書).”, “우리나라 사람의 고루함이 이와 같다(東人之孤陋, 類如是)”²⁷⁾라고 하였다. 이덕무의 개탄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는 패관소설을 매우 경시하여 “소설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파괴하므로 자제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⁸⁾ 하면서 보수파 문인들이 영조시기 중국소설 전파 확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덕무는 정조 2년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대 문예풍조가 바뀌고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 대한 정조의 태도는 조부 영조와 부친인 사도세자와 완전히 반대였다. 그는 “나는 본래 잡서를 즐겨보지 않아 『삼국지』나 『수호전』 등과 같은 책 역시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고, 한가할 때 내가 읽은 책은 성현의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다.”²⁹⁾ 고 하였다. 이 말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정조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천심을 군신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냈다. 정조는 적극적으로 ‘文體反正’운동을 펼쳤으며 여러 차례 연행사신들에게 “패관잡기는 물론이고 경서나 사서라도 唐板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 가져오지 말게 하고, 강을 건너 돌아올 때 일일이 조사하고 단속해서 군관이나

27) 李德懋, 『入燕記』 하, 林基中 주편 『燕行錄全集』 57, 동국대 출판부, 2001, 301~302면.

28)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5, 「嬰處雜稿一」, 민족문화추진회, 1967, 5~6면.

29) 『승정원일기』, 정조 23년(1799) 5월 5일. 孫勇進, 「『韓國所見中國古代小說史料』補遺·『三國演義』篇」에서 인용.

역관의 무리라도 만일 가져온 자가 있으면 바로 校館으로 소속시키게 하여 널리 유포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³⁰⁾는 금지령을 선포하였다. 정조 이후 純祖(1790~1834)는 비록 경서와 사서에 대해 해금하였으나 소설에 대한 금지령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흥미롭게도 순조의 세자 翼宗(1809~1830)은 부친의 금지령에 구애받지 않은 듯하다. 익종은 명나라 간본 소설인 『형세언』을 구해 아주 자세하게 읽었고 13회 말엽에 ‘淡軒’이라는 이름으로 평어를 써놓기도 하였다.³¹⁾

조선의 관아에서는 정조부터 순조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소설에 대한 禁輸令이 이어졌다. 이는 당연히 연행사인들이 소설을 구매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연행사인들에게 중국소설은 어쩌면 길고 긴 연행 여정과 쓸쓸한 북경 여관 생활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 수 있는 대상이자 동반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조선 哲宗 원년(1850, 도광 30년)에 문인 權時亨은 사신으로 연경에 갔다가 귀국 길에 차안에서 중국소설 『拍案驚奇』를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몰두하여(潛心不轉眼)” 읽다가 노새가 끄는 수레가 전복되고 사람은 수레 밖으로 떨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소설책도 “일곱 여덟 발자국 밖으로 떨어졌다.”³²⁾고 한다. 철종 10년(1859, 함풍 9년)에 또 다른 문인인 高時鴻은 冬至使과 함께 사신으로 북경에 갔는데 때마침 중국 경신년(1860, 함풍 10년) 새해를 맞았다. 정월 초사흘부터 초이레까지 연속 나흘 동안 그는 연행일기에 “종일 여관에서 책을 읽고 문박을 나가지 않았다.”, “종일 소설을 보았다.”³³⁾ 라고 적었다. 어떤 재미있는 중국 소설이 그와 함께 타국에서 특별한 새해를 보냈는지는 모른다. 기회가 없어 사신으로 가지 못한 조선 문인들은 아마도 연행사인들에게 고액을 지불하면서 중국소설을 구매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금령인 상황 속에서도 중국소설은 여전히 조선 문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암암리에 유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자를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 특히 여성독자들의 수요에 맞춰 많은 중국소설이 언해본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1884년 전후하여 역관 李鍾泰는 임금의 명으로 譯員을 모집하였고 100종에 달하는 중국소설을 번역하였다. 주로 후궁 여성들이 이용하는 왕실도서관 樂善齋는

30)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1792) 10월 19일. 『韓國所見中國古代小說史料』에서 인용, 21면.

31) 앞에서 인용한 김수연의 「명말 상업적 규범소설의 형성과 조선 왕의 소설 독서-규장각본 『型世言』을 중심으로」 참조.

32) 權時亨, 『석단연기(石湍燕記)』 “人” 卷, 『연행록전집(燕行錄全集)』 91책, 373~375면.

33) 高時鴻, 『연행록』, 『연행록전집』 92冊, 56~57면.

마치 중국소설 번역본 전문 소장기관과 같았다. 한국에서 현존하는 중국소설 번역본의 2/3이상은 거의 낙석재 구장본으로 그 중에는 120책(3책은 이미 유실됨)에 달하는 『홍루몽』 완역본도 포함되어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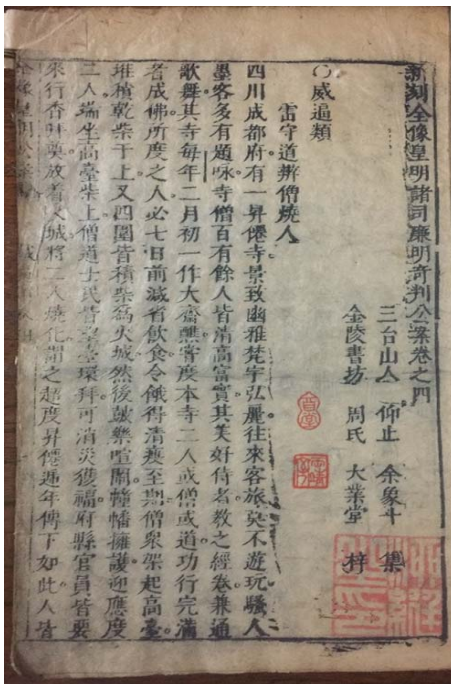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왕실과 연행사신들은 중국통속소설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왕실 사람들의 절대적인 권위와 정서적인 취미가 중국소설의 유입 규모와 전파 수준을 어느 정도 좌우했다. 중국소설을 직접 구매하고 열독하는 연행사의 행동은 중국소설을 수입하는 역할을 하였고, 관아의 금령과 독자 수요 사이의 균형을 미묘하게 조절하였다. 비록 儒學이 한반도의 사회와 문화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국 통속소설은 여전히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국소설은 외부에서 수입된 문학 품종으로서 한자문화의 특수한 힘에 의해 결국 알게 모르게 대대로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소설 서적 자체로 돌아가 이야기하자면, 2019년 6월, 필자는 한국 구장 명나라 판본 소설 『廉明公案』을 구매하였다. 3권과 4권은 잔존하였고 조선 장정 방식으로 첫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柳縉之印’ 장서 도장이 찍혀 있었다(<그림 11>). 유정(1684~1752)은 조선 중후기 문인으로 숙종 35년(1709, 강희 48년)에 進士試에 합격하였고 그 다음 해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였으며 司諫(1727), 承旨(1738), 漢城府右尹(1739) 등을 지냈다. 景宗 4년(1724, 옹정 2년) 10월에 유정은 進賀謝恩兼三節年貢使 서장관을 담당하고 사신으로 중국에 갔다. 『염명공안』은 유씨가 북경에 머물렀을 때 구매한 것이 아닐까? 조선의 연행사신들은 보고 싶은 책을 찾아서 유리창 거리를 방문한 기록은 연행록에서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겨진 연행사신 구장 한적은 그리 많지 않았고, 연행사신들이 읽고 소장한 중국통속소설은 더욱 보기 드물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행사신 구장본 소설 중에서 명나라 소설 출판역사의 秘聞³⁵⁾이 숨어있다. 『염명공안』 권3 2칙은 「王巡道察出匿名」(<그림 12>)으로 복건 泉州 관리가 뇌물을 수수하여 재산다툼 사건을 오판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두 명의 지방 세도가 黃鳳翔(1540~1614)과 丁此呂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어 소설이 인쇄 발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의 인쇄판을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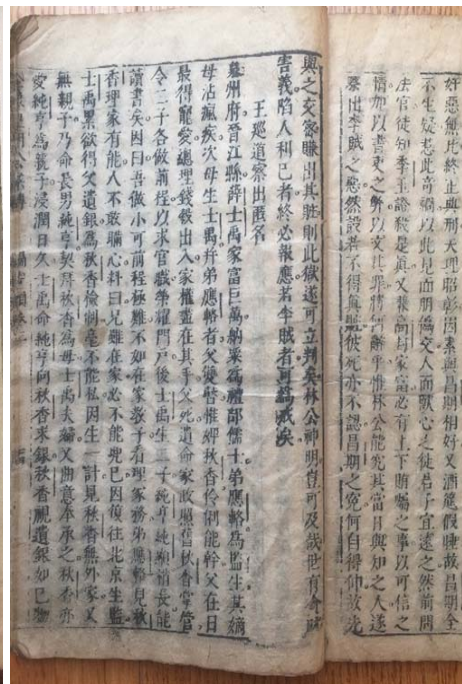
34) 崔溶澈·肖大平 역, 『紅樓夢在韓國的傳播與翻譯』 1장, 中華書國, 2018, 9~15면.

35) 潘建國, 「明代公案小說的文本抽毀與版本流播-以餘象門『皇明諸司廉明奇判公案』爲例」, 『文學遺產』, 2020.4.

파기하였다. 이 때문에 현존하는 8부의 명나라 판본 『염명공안』은 모두 이 부분만 삭제되어 있다. 오직 이 한국 구장본만이 흔히 않은 명나라 말기 金陵 大業堂의 번각본이며, 해당 번각본의 저본은 의외로 훼손되지 않은 初刻 최초 인쇄본 『염명공안』이다. 이에 「왕순도찰출익명」 편도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조선 연행사신인 유정 자신도 당시 자신이 한 권의 소설책에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 중국소설사와 동아시아 서적역사에 이처럼 전기적인 한 획을 그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림 11〉 조선 연행사 유정 구장 명간본
『염명공안』(현 양정실 소장)



〈그림 12〉 조선 연행사 유정 구장 명간본
『염명공안』 권3 「왕순도찰출익명」

투고일: 2021.01.31

심사일: 2021.03.07

게재확정일: 2021.03.19

참고문헌

- 高時鴻, 『연행록』, 『연행록전집』 92冊
- 김수연, 「명말 상업적 규범소설의 형성과 조선 왕의 소설 독서-규장각본 『型世言』을 중심으로」, 『國際漢學研究通訊』, 北京大學, 2019
- 閔寬東·陳文新, 『韓國所藏或文獻記錄所見中國古代小說書目』, 武漢大學出版社, 2011
- 閔寬東·陳文新·張守連, 『韓國所藏中國通俗小說版本目錄』, 武漢大學出版社, 2015
- 樸在淵·崔溶澈, 『韓國所見中國通俗小說書目』, 韓國, 江原大學校, 1993
- 樸在淵, 「關於新發見的朝鮮活字『三國志通俗演義』」, 『南京大學學報』, 2010
- 潘建國·樸在淵·孫遜, 『韓國所藏中國珍本小說叢刊』, 上海古籍出版社, 2014
- 潘建國, 「新發現明末清初小說『留人眼』考」, 『明清小說研究』, 2015
- _____, 「存世最初的小說版皇明開國史一天一閣藏『國朝英烈傳』及基價值」, 『稻畑耕一郎教授榮休紀念論文集』, 日本東京書店, 2017
- _____, 「新見清初章回小說『莽男兒』考論」, 『文學遺產』, 2019
- _____, 「老獺稚故事的中國淵源及其東亞流-以清初<莽男兒>小說<秀衣郎>傳奇爲新資料」, 『民族文學研究』, 2019
- _____, 「阿英藏清早期刻本『留人眼』小說考略」, 『明清小說研究』, 2019
- _____, 「明代公案小說的文本抽毀與版本流播—以餘象門『皇明諸司廉明奇判公案』爲例」, 『文學遺產』, 2020
- 謝明勛, 「西遊新材料的提出: 韓國敬天寺元代石塔『西遊』故事浮雕圖解」, 『西遊記考論』 1章, 臺灣裏仁書局, 2015
- 石昌渝, 『中國古代小說總目』 白話卷, 山西教育出版社, 2004
- 孫勇進, 「『韓國所見中國古代小說史料』補遺·『三國演義』篇」, 『文學與文化』, 南開大學, 2016
- 楊緒容, 『百家公案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15
- 權時亨, 『石湍燕記』 “人”卷, 『燕行錄全集』 91冊.
- 李國慶, 「『醒世姻緣傳』版本新探」, 上下編, 『明清小說研究』, 2005.2~2006.3
-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 「嬰處雜稿一」, 민족문화추진회, 1967
- _____, 『入燕記』 下, 林基中 注編 『燕行錄全集』 57, 동국대 출판부, 2001
- 李圭景, 『中國善本書提要』,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全寅初, 『韓國所藏中國漢籍總目』, 韓國, 학고방, 2005
- 鄭沃根, 「中國古代小說在韓國的流傳和影響」, 『華東師範大學學報』, 上海, 1994(4)
- 鍾敬文, 「老獺稚型傳說之發生地 - 呈服部宇之、西村真次」, 『民族文學研究』 1(1), 東京, 1935
- 趙維國, 「論『三國志通俗演義』在朝鮮半島的傳播與接受」, 『學術界』, 2011
- 朱 雯, 「稀見清代小說『錦旗遊』敘論」, 『文學遺產』, 2020

陳翔華，「中國古代小說東傳韓國及其影響」，『文獻』，北京，1998(3)·(4)

川浩二，「天一閣博物館藏『國朝英烈傳』與歷史小說『皇明英烈傳』」，『中國文學研究』，復旦大學，2011

崔溶澈·肖大平 譯，『紅樓夢在韓國的傳播與翻譯』1章，中華書國，2018

An overview of Chinese Printed Popular Fictions Collected in South Korea

Pan, Jian-guo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f several existing bibliographies, the amount of Chinese printed popular fictions collected in South Korea is considerable, but the main is bookshop printed editions in mid and late Qing and stereotype or lithographic editions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 The amount of Ming and early Qing editions which have higher academic and documentation value is limited, but there are still some rare and the only existing editions, not only some lost fictions in China such as Xingshiyan, Mangnaner, but also some early important editions in Ming and Qing dynasty, such as Huangmingyingliezhuan, Baijiagongan, Lianminggongan, Xingshiyinyuanzhuan, Yin-fengxiao, which can help academic work. I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Chinese popular fictions to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royal family and Yanxingshi played an important role. Although Chinese fictions didn't get enough att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Confucianism dominated, they still influenced generations of Koreans, directly or indirectly, using the special power of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Key Words : Chinese Printed Edition, Fiction Spread, Yanxingshi, East Asia Chinese Books, South Korea Book Collection